

# 전북 생태관광 1번지로 거듭난다

전북형 생태관광 콘텐츠의 발굴·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가 생태관광 1번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4일 도는 군산시 청암산 에코리조트 생태관광지를 방문해 생태탐방을 실시하는 한편 도·시·군이 모여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및 적용방법 전략 구상 워크숍'을 갖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민선 6기 핵심과제로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1시·군 1생태관광지 10개년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시·군별로 1억원씩 도비를 지원해 '생태관광지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별 '생태관광지 조성 10개년 마스터플랜'을 기초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지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생태관광지는 크게 지질공원형과 생물군락지형, 경

## 콘텐츠 발굴·적용방법 전략 구상 워크숍 1시군 1생태관광지 10개년 조성계획 발표

관자원형, 생태관광기반형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이중 지질공원형에는 마이산 역암과 타포니 지형, 수선수 등을 지질자원으로 하는 진안군의 지오파크(Geo-park)가 해당한다.

또한 생물군락지형에는 전주 삼천발뫼 생태마을과 정수 금강발원지 뜰봉샘 에코파크,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등이 해당한다. 이들 생태 관광지는 각각 반딧불이, 삿갓나리, 이끼도롱뇽, 수달, 황새 등이 서식해 자연의 힐링 효과를 누리게 한다.

이러 경관자원형에는 군산 청암산 에코리조트, 김제 벽골제 농경생태원, 완주 경천 싱그람이 에코빌, 순창 섬진강 장군목, 부안 신운천 수생생태정

원 등이다. 특히 이중 군산 청암산 에코리조트 생태관광지는 40여 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태경관자연이 우수한 지역으로 멸종위기식물과 법정보호종을 포함해 621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군산저수지와 청암산 및 구불길 등 자연스러운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끝으로 생태관광기반형에는 익산 서동 생태관광지, 정읍 내장호 생태관광타운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무주 구천동 33경, 임실 성수 왕의 숲 등이 있다.

앞으로 도는 전북형 생태관광의 키워드를 ▲생태네트워크(함께 만든다),

▲생태체험 1번지(특별하다), ▲스토리가 있는 생태길(자연과 문화의 융합 스토리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이다), ▲이끼지기한 불거리(작은 정성을 모으다), ▲재능기부(제품의 미학), ▲힐링과 치유로 정하고, 특색 있는 생태관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해 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생태관광지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소득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인공적 요소를 지양하고, 천연재료를 활용한 생태관광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생태체험 1번지, 전라북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점 많아”

전주시의회 특위, 운영 개선 중간결과 발표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규)가 폐기물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고 특위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24일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의 활동기간을 통해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지급되는 등 개선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공사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구별로 현금이 지급되었고 반입수수로 경우 폐기물반입량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도 고정금액이 지원되는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소각장의 경우 악취비와 기계 교체비 유지보수 등의 비용 지출 대부분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폐기물 선별장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폐기물매립장에 설치돼 매

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부당한 간섭 등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93일간 연장된 리사이클링의 공사기간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사인 (주)전주리사이클링에 넘기는 공사기간 연장을 지역주민들의 진입도로 점거농성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검토 자료에는 시공사 측의 입장 위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리사이클링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개설 예정지의 80% 이상을 매입해놓고도 나머지 토지 매입에 실패, 우회도로를 내면서 예산낭비를 불러왔다.

이원규 위원장은 "그간 조사된 내용과 최근 제기된 주민갈등 및 증진출석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하겠다"며 "특위활동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여가부, 맞춤형 부모교육

전문강사 901명 정보 제공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맞춤형 부모교육 전문강사 901명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모교육 전문강사 현황'은 그동안 여성가족,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와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부모교육 전문강사 자료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앞으로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부모교육 실시 기관의 지역과 교육대상 등을 고려해 맞춤형 부모교육 강사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앞서 여가부는 이번 강사 자료 취합을 위해 1차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강사 자료를 조사했다. 2차로 학부모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전문강사 자료를 조사해 중복 여부를 검증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강사들을 주요 활동 기관과 강의 분야별로 분류해 모두 901명으로 정리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85명, 학부모지원센터 12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78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교육강사) 17명이다.

부모교육 실시 계획이 있는 기관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문의(02-3479-7656)하면 이밖에 조사된 '부모교육 전문강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강의분야·강의경력별로 맞춤형 전문강사를 소개받을 수 있다.

/박용주 기자



연수받으러 왔습니다

한국국제정보공사(LX공사)는 글로벌 토지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에티오피아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술탄 모하메드 알야 에티오피아 지도청 청장과 조백희 LX공사 글로벌사업처장 등이 입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경찰, 비위 직원 '철퇴' 기강 확립 강화

## 금품요구 경찰 '파면'

전북경찰청이 최근 비위로 물의를 빚은 경찰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 대상자에게 사고 처리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을 파면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해당 경찰 A(48)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파면조치가 내려졌다. A경위는 지난 4월 음주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같은 A경위의 비위는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즉시 대기발령하고,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최고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또한 다른 경찰관 B(55)경위에 대해서도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한 여성이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남성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였고 도망가는 남성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남성은 B경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수 기자

## 전주 평화동 보행자전용도로 녹색쉼터 조성

전주시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 속 삭막한 공간들을 녹색쉼터로 바꾼다.

전주시는 민선 6기 '운동숲 조성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9700만원을 투입해 평화동 보행자전용도로(가로 33m, 세로 7m)에 이팝나무와 자산홍 등 수목 5종 1,100그루를 식재해 시민들을 위한 녹색 쉼터로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곳은 바다포장 등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혐오스러운 정도의 불편을 겪어온 보행자 공간이었다.

시는 보행공간에 이팝나무, 자산홍을 식재하고 시민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계비온 앉음석을 설치해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김영재 기자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연말까지 휴관

### 리모델링·전시물 설치 위해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 새 단장을 위해 휴관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리모델링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휴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개장한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은 그간 100만명이 방문하는 등 전주시민은 물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거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시는 이러한 자연생태박물관을 전주천의 생태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특색을 지닌 체험 및 교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전주천 물속생태'와

'전주천 주변생태'를 모티브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한 달간 시운전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자연생태박물관을 한옥마을과 치명자산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로 구축,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전주시 고유의 자연생태 지켜나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으로 관광객들에게 생태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공간이자,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생태체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